

1. 오늘까지 선교집회를 인도해주신 안충효선교사님(아프리카 시에라리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로서 동역해주시기 바랍니다.
2. SEA Mission(김갈렙선교사)에서 11월 몬트리올 노숙인 사역에 쓰여질 겨울용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겨울용품이나 사용했던 겨울용품(목도리, 장갑, 겨울외투, 그 외 방한용품)을 세척하셔서 10월 마지막주까지 도네이션에 동참해주신다면 좋은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3. 오늘 셀모임 시간에 건너편 룸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일 예배후의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나눔에 쓰여질 애찬과 간식에 매 주마다 자원하시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모일때마다 간식을 준비한 손길들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랍니다.
5. 기도시간은 매일 저녁 8~10시, 새벽 예배는 화~토 오전 6시,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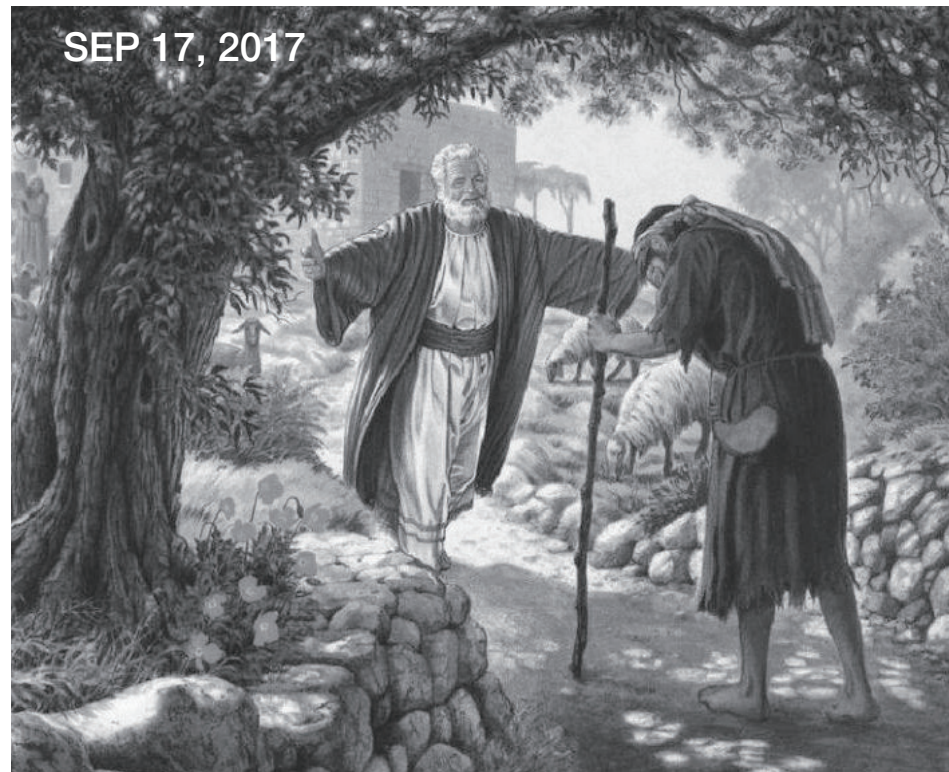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_____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섬김의 손길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전도사 조선희 전도사
찬양팀 인도 |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 김동해,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이기준
기술 | 이기훈, 한정훈, 박지은

대표기도자 24일 기준남 / 10월 1일 이웅희 / 8일 윤유진 / 17일 이호성

주일 예배 순서

SEPTEMBER 17, 2017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대표 기도	----- 강지연 집사
헌금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4:1~19
말씀선포	----- “성공한 그리스도인”
축도	----- 안충효 선교사 (시에라리온)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헌금은 예배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

은혜받은 자의 마음 | 170910 주일예배
마태복음 20:1~16

오늘 본문은 신앙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 로마의 통치아래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혹독한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고 흉년이 있을 때는 밭도 팔고 집도 저당 잡혀서라도 꼭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인력시장이 유행이었고 싼 값에라도 많은 일을 해서 세금을 위한 헌금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동이 뜨기전 떼지어 모여 들었던 이른 아침, 제 삼시(9시), 육시(정오), 구시(오후3시), 십일 시(오후5시), 저물매(작업종료, 보통 저녁 6시가 업무종료)의 다양한 시간에 일꾼들이 뿔뿔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은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구원의 평등성, 천국의 평등성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주님이 이와 함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구조를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20:16 오늘 이 얘기를 하신 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본문을 마무리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앞장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청년이 다녔던 다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절인 3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

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야죠! 경력을 인정 해줘야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쳐줘야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은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느냐’에 대한 외적인 헌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으며 현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은혜 받은 자가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보상심리입니다. 일찍 온 자들이 더 많이 일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온 자들의 당연한 보상의를 지적하시며 먼저 왔지만 나중 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업적보다 현재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자세가 어떠한 것이죠. 마태복음 19: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니라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부자청년이야기입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켰으니 기대감도 컸겠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그의 질문 속에는 보상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더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심했고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했고...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챙겨주고 보상해 줘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믿었지만 나중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째는 공로주의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충성하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몸이 부서져라 했는데 목회자가 전화 한 통도 없고, 교회에서 광고도 안해 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만 1호, 텃새, 시기와 분쟁 1호는 다름 아닌 공로주의입니다.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공로주의는 교회의 주인의 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 계급도 아니고 공로를 인정해준 표식도 아니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 댓가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없고 공로주의에 젖은 순간 먼저 믿었지만 나중 된 자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겸손과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고 따지는 그 순간,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따질 수 있을까요? 보상을 요구하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와서 일했다 하더라도 늦게 와서 많은 보상을 받은 자처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은혜는 받은 사람이며, 값없이 주신 영원한 영생천국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상심리,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먼저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